

연중21주일 감사성찬례

집전 천용욱 신부

시작예식 · 말씀의 전례

입 당 성 가	성 가	255장
죄 의 고 백	기도서	244쪽
기 원 송 가 우리에게 오시어.....	기도서	246쪽
1 독 서열왕상 8:22-30, 41-43.....	말 은 이	
2 독 서예레 6:10-20.....	말 은 이	
성 시시편 84:1-5.....	다 함 께	
복 음요한 6:56-69.....	말 은 이	
설 교 믿음의 길	사제 구균하	
사 도 신 경	다 함 께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말 은 이	

성찬의 전례 · 파송예식

봉 헌 성 가	성 가	338장
성 찬 기 도 제3양식	기도서	263쪽
성 체 성 가	오르간 연주	
축 복 기 도	집 전 사 제	
파 송 성 가	성 가	493장

< 감사성찬례 및 주일봉사자 >

구 분	다음 주일(연중21주일 8월22일)[온라인]		다음 주일(연중22주일 8월29일)[온라인]	
	11시[유튜브]	1시[zoom]	11시[유튜브]	1시[zoom]
집 전	천용욱신부	구균하신부	구균하신부	천용욱신부
설 교	구균하신부	구균하신부	천용욱신부	천용욱신부
독 서	이성식	신환중	변금숙	김현우
	차기성	-	신환중	-
교회와세상을 위한 기도	김종희	이자영	한재업	김연우
십 자 가	-	-	-	-
청 소	사목단 8월21일		사목단 8월28일	

< 다음주일 8월 29일 연중22주일 >

독서/복음	아카 2:8-13 / 아고 1:17-27 / 시편 15 / 마르 7:1-8, 14-15, 21-23			
설 교	우리를 더럽히는 것			
성 가	입당 243장	봉헌 308장	영성체 오르간 연주	파송 578장

다음주일 암송구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더럽히는 것은 도리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마르 7:15)

시편 84편

- 만군의 주여, 계시는 곳 얼마나 좋으신가!
|| 내 영혼이 주님의 성전 뜰 안에 그리워 애타다
|| 지쳐옵네다.
- 나의 마음, 나의 이 몸이 살아계신 하느님께
|| 기쁜 노래 부르옵네다.
- 나의 왕, 나의 하느님, 만군의 주여, 당신의 제단 곁에는 참새도 | 깃들이-고
|| 제비도 새끼 칠 보금자리 | 얻었습니 다.
- 당신 집에 사는 사람 복! 되오니
|| 길이길이 당신을 찬미 하옵니-다.
- 주님께 힘을 | 얻-어
|| 순례길에 오른 사람 | 복되어-라.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지금도 ○ 그리-고 ○ 영! 원히 아-멘

기도의 향

- + **교회를 위하여**
 -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도록
 - 아프고 약한 이웃을 돌보도록
 - 성령 안에서 더불어 살도록
 - 배우고 익힘으로 예수님을 닮도록
- + **가정을 위하여**
 - 모든 가정이 니자렛 성가정을 본받도록
- +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 코로나 19 극복을 위하여
 - 남북한의 평화를 위하여
 -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 + **환 자**
 - 한부수 손정자 박길자 강보경 권영달 김경옥
 - 이명길 윤길자 이현숙 채옥순 최중순 신희숙
 - 신정자 고 금 정명옥 유호애
- + **임신부** 강서민 정선탐
- + **군복무** 전필중 김건우 조윤희 이준형 송준석
- + **유 학** 이재성(독일)
- + **장기출장** 박지혁(미국) 김슬기(미국) 이재동 윤상기(미국) 서현일(캐나다)

교 회 소 식

<주일 감사성찬례 참여를 위한 지침>

- * 거리두기 4단계 지침에 따라 모든 전례와 모임은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 거리두기 4단계-비대면 전례 안내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연장과 서울교구 사목지침(7월9일자)에 따라 우리 영등포교회는 공동체 전례를 비대면으로 거행합니다. 이에 **9월 5일(성당축성주일)까지 주일감사성찬례는 11시[유튜브 실시간] 비대면으로 봉헌합니다[9시 성찬례 없음]. 또한 오후 1시에는 중으로 교회학교 어린이를 위한 감사성찬례를 드립니다.** 주보는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각 가정으로 발송하겠습니다. 개인위생과 방역에 안전을 기해주시고 하루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365 성서통독운동’

[365 성서통독 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시시오. 매일 전달되는 문자와 카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아침기도 안내

거리두기 상황으로 오전5시50분 아침기도는 비대면이며 사목단만 참여하여 드립니다. 기도 후 ‘오늘의 말씀’, ‘새길 말씀’, ‘묵상 길잡이’와 ‘기도 의향’을 문자와 카드로 보내드립니다.

◆ 덴탈 마스크 판매

서창교회 신자본이 운영하던 마스크 공장의 부도로 마스크를 기증하였습니다. 이에 교회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여 기증해 준 교우의 어려움을 돕고자 합니다. 덴탈마스크 **4박스(200개)를 1만원**에 판매하오니 필요하신 교우님들은 구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활동단체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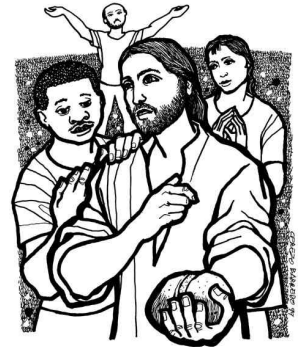
+ 어머니회 물품 판매

-다시마 1kg(1박스) 1만7천원 -미역 1kg(1박스) 2만8천원
-참기름 1병 1만원 -들기름 1병 9천원
-엿기름 600g 4천원 -멸치 1박스 1만7천원
-된 장 2kg 1만3천원 -순창매실고추장 2kg 1만5천원
-고춧가루 예약 받습니다.

▶ 교우 소식

+ 생일을 축하합니다!

윤영자(23일) 안창희(24일) 이자영(25일) 이예준(28일) 서교빈(26일)



구 분	참 석	봉 헌	금 액
감사성찬례	월정심일조		610,000
주일	10	주정현금	105,000
아침기도	10	교회학교	7,000
		감사헌금	80,000
		주일헌금	5,000
		성소계발	-
합 계	20	합 계	807,000

<기간 8.9(6시30분)~8.15(13시27분)>

월정심일조	김재현 김용학 김종희 송미경 유희주 추형두 한재업
주정현금	김경찬 송미경 이정숙 이경희 박남이 박성준
감사헌금	곽은영(생활/3만) 송미경(생활/5만)
특별헌금	김용학(예수시랑/3만)
성소계발	

<헌금기간 8.9(6시30분)~8.15(13시27분)>

함께 읽는 365 성서통독

2020년 11월 29일(대림1주일) 부터
2021년 11월 21일(왕이신 그리스도주일)까지

“한 말씀만 하소서. 우리가 곧 나으리이다.”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함께 읽고, 함께 익히고, 함께 살아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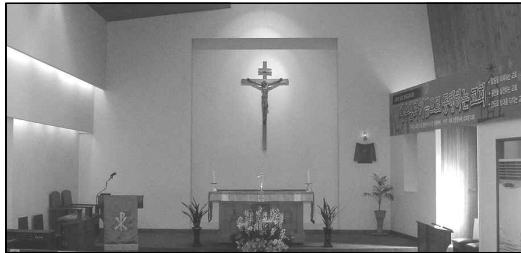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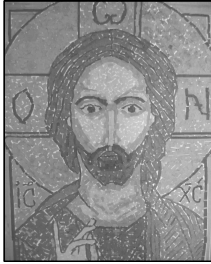
함께 읽는 365 성서통독

“한 말씀만 하소서. 우리가 곧 나으리이다.”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함께 읽고, 함께 익히고, 함께 살아가기

2020. 11. 29.(대림1주일) - 2021. 11. 21.(왕이신 그리스도주일)



성공회

영등포교회

성공회(聖公會 Holy catholic church)는 하나이요, 거룩하고(聖), 보편되며(公), 사도로부터 이어온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會)입니다. 성공회는 믿음의 기초를 성서에 두고,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으며,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전통과 역사를 지닌 교회입니다. 영국교회(Church of England)의 선교로 1890년에 설립한 대한성공회는 13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성공회공동체(Anglican Communion)의 신자는 164개 국가에 약 1억 명입니다.

성공회 영등포교회는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강남교무구에 소속되어 있으며 1966년 노동자를 위한 교회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변 환경의 변화와 함께 지역교회로서 그 사명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성공회의 선교정신은

- 첫째,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 둘째, 새 신자를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양육합니다.
- 셋째,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의 필요에 응답합니다.
- 넷째, 불의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 다섯째, 창조질서를 보존하며, 지구생명의 회복과 유지에 헌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래의 다섯 가지를 지향합니다.

-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
- 아프고 약한 이웃을 내 몸처럼 보살피고 돌보는 교회
- 성령의 도움으로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
-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대한성공회 영등포교회 크리스토퍼

2021 교구표어 “친교의 신앙으로 선교하는 제자공동체”

교회표어 “하느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은사공동체”

‘믿음의 길’

우리는 세례 받은 이로서 성체성사에 참여하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이여 우리가 하느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 분임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부귀영화와 거리가 멀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따라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질서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을 보다 인간답게 하고 삶을 보다 가치롭게 한다고 믿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신앙을 세상 안에서 얻는 성공에 이르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 살기보다 하느님께서 자신들의 뜻에 따라 주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리켜 믿지 않는 이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고 생명을 떠납니다.

성체와 보혈을 영하는 일은 신묘한 능력을 얻어 천하무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는 은총입니다. 나아가 하느님께서 만드신 세상과 인간을 살리기 위해 우리 자신을 음식으로 내어놓겠다는 결단이며 그 사랑의 실천이 곧 하느님과 하나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는 길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체성사를 받아 모신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고난과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먼저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처럼 험준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 하고, 또 걸어가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서로 도우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사랑의 길이며,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신 하느님을 향한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왔고, 걷고 있으며, 마지막 날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느 때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빵을 많이 한 기적이 다시 눈앞에서 재현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이제 우리들의 손에 맡겨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과 재화를,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그리고 나아가 우리 자신을 서로의 음식으로 내어놓을 때, 주님의 그 기적이 우리 안에 다시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 만나지 못하지만,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서로 안부를 전하고, 몸과 마음이 아픈 교우들과 이웃들의 근황을 살피아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을 전하는 나눔이 다른 이들을 살리는 생명의 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체성사에 참여하는 진정한 의미를 살아가는 일이며 우리의 믿음을 살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

주일 및 주간 모임

- *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주일 및 주간의 모든 전례와 모임은 없습니다.
- * 8월 22일(오늘)은 11시 감사성찬례를 실시간 유튜브로 봉헌합니다.
- * 11시 감사성찬례는 유튜브로 생중계합니다.

대한성공회 영등포교회 채널

<QR코드>

찾아오시는 길

서울교구장 이경호 주교 관할사제 천용욱 010-4123-7357 보좌사제 구균하 010-3460-7382 신자회장 김중희 010-5472-0529 사제회장 차기성 010-4339-5233 보혈조력 박해웅 신환중 윤영욱 윤용환 이용해 이종한 차기성	원로위원 서세룡 유호에 송갑호 추형두 이충용 이용해 박해웅 윤용환 교회위원 구정애 변금숙 서남철 신환중 이성식 이평환 조진성 추경민 한재업 성가대 지휘 김민숙 선창 한재업 반주 고아람 심민경 제단꽃꽂이 이경희 이나희	(07299)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430 전 화 2671-6290 2633-8877(팩스점음) 홈페이지 www.stchristopher.or.kr e-mail ydp@anglican.kr
기업은행 083-082654-04-015 예금주 대한성공회 영등포교회		